4차 산업혁명 물결… 전경련 포럼서 밝힌 韓·美·中 대표기업 전략

SK텔, AI플랫폼 신병기로 키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한·미·중 대표 기업들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평창알펜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124년 역사를 가진 GE는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사업 재편을 꾀해온 기업으로 유명하다. 2001년부터 GE를 이끌고 있는 제프리 이멀트 GE 회장은 미디어, 플라스틱, 실리콘, 가전 등을 매각했고 전력, 물, 에너지, 헬스케어 등에 주력하고 있다. 강성욱 GE코리아 총괄대표는 28일 "B2B(기업 대 기업)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애플 생태계는 B2C(기업 대 소비자) 시장에서 세상을 만나는 창구를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GE는 B2B시장에서 세상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겠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발전설비, 항공엔진은 20~30년 주기로 움직인다"며 "이런 B2B시장에서 또 다른 디지털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GE디지털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로 성장한 중국 화웨이는 매년 30% 이상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608억달러로 전년 대비 37.1%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 늘었다. 켈빈 딩 한국화웨이 대표는 "현재는 모바일과 인터넷 등 100억개 기기가 연결돼 있지만 사물인터넷시장이 본격화되면 1000억개 기기가 연결되는 세상이 펼쳐진다"고 말했다. 딩 대표는 "초연결사회에서 나타날 새로운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딩 대표는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17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R&D 분야에만 7만9000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딩 대표는 "최근 10년 동안 R&D에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며 "지난해 R&D 투자 비중은 15.1%에 달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음성인식, 영상인식 등 인공지능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물결을 돌파할 무기로 내세웠다. 박명순 SK텔레콤 미래기술원장은 "아마존 에코와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에코란 음성인식 스피커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결과를 알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홈을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박 원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를 수리하고 (사고를) 예측하는 예지 장비를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 같은 솔루션을 이미 SK하이닉스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박명순 SKT 미래기술 원장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선도
장애 예측 및 예측 정비 가능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 예정

강성욱 GE코리아 대표
B2B시장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발전소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화
항공기 엔진 활용 사고 예방

켈빈 딩 한국화웨이 대표
초연결사회 기술표준 선점
1,000억개 기기 연결 플랫폼 구축
러시아 알고리즘연구소 등

GE는 B2B플랫폼, 화웨이 초연결사회 기술 주목

삼성전자의 삼성중공업 구하기

"삼성重 대출 연장해달라" 요청… 농협銀 "삼성과 관계 감안해 연장"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의 은행권 여신을 연장하기 위해 직접 뛰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NH농협은행에 자회사인 삼성중공업의 여신 만기 연장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에 만기(1년)가 돌아온 농협은행의 삼성중공업 여신 2000억원에 대해 삼성전자가 농협은행에 이를 연장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중공업 지분 17.62%를 가진 대주주이며 그룹사의 재무상황을 총괄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이 나서서 삼성중공업 여신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14일 삼성중공업의 재무·영업 상황을 고려해 여신 2000억원의 만기를 3개월 연장했다. 농협은행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올해 9월께로 예정된 1조원대 유상증자 등으로 삼성중공업의 단기 유동성이 해소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같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이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의 주간사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농협은행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여신 만기 한 달 전인 6월 초 농협은행에는 삼성전자의 예금 2조원이 예치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농협은행에 1조원의 예금을 두고 있었는데 6월 초 3배 늘린 3조원에 맞춘 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예금을 유치하면 자금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그룹 시너지와 삼성과의 거래 전체를 고려해 만기를 연장했고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인 3개월로 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올 때 상황을 보고 연장이나 회수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의 여신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예금 예치도 삼성중공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삼성중공업이 은행 여신을 상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 조선산업 구조조정 분위기에서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는 차원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재무상황을 볼 때 1조원가량의 유상증자가 제때 이뤄지면 굳이 은행 돈을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현대·기아차 협력사 직원자녀 영어캠프 현대·기아자동차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송파구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에서 협력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2016 여름 영어캠프'를 실시한다. 〈사진 제공=현대·기아차〉

유한양행, 中에 기술 수출

폐암치료제 후보물질 1350억원에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인 'YH25448'을 중국 제약기업 뤄신에 기술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유한양행은 총 1억2000만달러(약 1350억원)의 기술료를 단계별로 받는다. 초기 계약금은 600만달러 수준이며 향후 중국 내 매출에 따른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된다.

YH25448은 유한양행에서 연구개발 중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기존 약물에 저항성을 갖는 변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우수한 약효가 있고 높은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우수한 약효가 기대되는 신약 후보물질이다.

유한양행과 뤄신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동시 허가를 목표로 올해 말까지 다국가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콩 상장법인 뤄신은 이번 계약으로 중국 내 YH25448의 개발·허가·생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중국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4억달러로 추정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2022년에 약 69만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기술 수출은 바이오벤처의 기술을 대형 제약사가 투자를 통해 이전받아 이룬 오픈이노베이션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7월에 국내 바이오벤처인 오스코텍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받아, 약 1년의 짧은 연구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기술 가치를 끌어올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동인 기자

LG상사 웃고 포스코대우·삼성물산 울상

종합상사 성적표 자원개발서 '희비'

국내 3대 종합상사의 2분기 실적은 자원개발 부문에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LG상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564억원, 포스코대우는 5.3% 감소한 823억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 상사 부문 영업이익은 11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227억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LG상사 매출 비중의 3분의 1가량은 석탄, 석유 등 자원개발 분야에서 나온다. 이 중 석탄 사업은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등 4곳의 광산에 투자하는 등 LG상사의 주력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석탄가격 하락으로 고전했지만 올해 들어 석탄가격이 상승하자 '깜짝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석탄 감축 정책을 펼쳐 석탄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이달 들어 11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고, 국제 석탄가격도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포스코대우는 그간 부진했던 무역 부문이 선전했지만 캐시카우였던 미얀마 가스전이 발목을 잡았다. 올해 2분기 미얀마 가스전 영업이익은 5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나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372억세제곱피트에 비해 올해 348억세제곱피트로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포스코대우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유가 하락, 가스전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며 "생산량 하락분은 올해 하반기에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삼성물산 상사 부문의 경우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원자재 부문에서 구리가격 하락 영향이 가장 컸고 섬유, 광물 트레이딩 물량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윤진호 기자

사상최대 실적 불구 자료도 못낸 롯데케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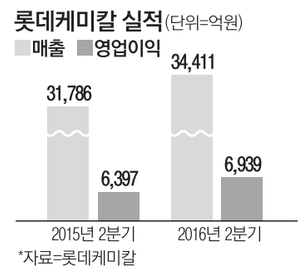
2분기 영업익 LG화학 추월… 검찰 수사 압박에 '자중모드'

에틸렌 강세 덕에 롯데케미칼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28일 "2분기에 매출 3조4411억원과 영업이익 693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3%, 8.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순이익은 4603억원이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업계 최대 경쟁자인 LG화학(6158억원)을 2분기 연속으로 넘어섰다. 롯데케미칼이 LG화학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역대를 통틀어 작년 2분기와 올해 1·2분기뿐이다.

규모가 작은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이 많은 것은 사업구조 차이 때문이다. 롯데케미칼은 에틸렌을 비롯한 전통적인 화학 제품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수직계열화를 이뤘다. 이 영향으로 화학제품 시황이 좋을 때 롯데케미칼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좋아진다. 화학사들 실적 전망의 기준인 에틸렌스프레드(에틸렌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금액)는 평균 t당 723달러 선이었다. 이는 1분기 t당 640달러였던 것에 비해 높아진 수준이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췄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롯데케미칼은 이날 공시 외에 별도의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축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욱 기자

한국마사회 임원(상임이사) 공모

'고객감동과 혁신을 통한 No. 1 공기업'을 추구하는 한국마사회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상임이사)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공모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 1명

임 기 :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자격요건

○ 경마 및 말산업 육성을 통해 축산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경영의지와 상임이사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을 보유하신 분
○ 책임감, 청렴성, 도덕성 등 투철한 직업윤리 의식을 갖추신 분
○ 상임이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 **결격사항**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한국마사회법」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www.kra.co.kr에서 지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주어진 양식을 준수할 것)
① 지원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제출)
※ **학력증명서는 기재된 학력에 관한 모든 증빙이 필요(대학교 이상)**하며, 경력 사항은 **증빙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할 것**
※ 관련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필' 필요
②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A4용지 4~6매 정도)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5매 내외)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6.07.29(금) ~ 2016.08.12(금), 18시까지**
※ 방문접수시 토요일은 정상근무로 서류접수 가능하나, 휴일(일/월요일)은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우 : 13822)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인사팀(본관 1층)

심사방법

○ 상임이사 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평가 시행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시행 (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전형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통보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모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외비밀이 유지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인사팀(☎02-509-1416)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 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 마 사 회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공고 제 2016 - 01 호

–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

공동주택용지(임대) 공급 공고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2로 13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양묵

2. 공급대상토지

블럭명	공급용도		면적(㎡)	공급예정가격(천원)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방법	토지사용시기
A-2	공동주택용지(일반임대)	60㎡ 이하	11,966	27,521,800	252	35	180%	16	경쟁입찰	2018.6 이후
A-3		60㎡ 이하	20,473	48,111,550	402					
		60㎡~85㎡			18					
A-4		60㎡ 이하	18,275	43,220,375	236					
		60㎡~85㎡			106					

※ 공급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임

3.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보유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와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자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실적 또는 사용(준공)검사 실적이 있는자

4. 공급/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	2016. 8. 10 (10:00 ~ 16:00)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2로13 (청계동, 한흥빌딩 5층)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주)
입찰서 투찰	2016. 8. 10 (16:00 ~ 16:30)	
개찰 및 낙찰자발표	2016. 8. 10 (17:00)	
계약체결	2016. 8. 16 (10:00 ~ 15:00)	

5.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공급대상자는 입찰시간(2016.08.10. 16:30)에 입찰장소에 도착하여 매입의사를 표시한 자들(단, 신청자격, 서류 및 조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중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공급예정가격의 5%)을 입금한 다음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장소에서 직접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입찰보증금만 납부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입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2개법인 이상 공동신청은 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시 공동신청인 전원이 서명 날인한 대표자 선임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법인신청자의 경우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2개 법인이상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 신청시와 계약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개발사업본부 ☎031-689-4066 또는 당사 홈페이지(http://baegunamc.co.kr)의 공지사항에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9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이사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공고 제 2016 - 02 호

–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

업무용지/의료용지 공급 공고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2로 13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양묵

2. 공급대상토지

블럭명	공급용도	면적(㎡)	공급예정가격(천원)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방법	토지사용시기
업1	업무시설용지	14,994	36,435,420	70 이하	500 이하	10층 이하	경쟁입찰	2018.6 이후
업2	업무시설용지	25,493	61,947,990					
의1	의료시설용지	19,557	37,940,580					

※ 공급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임

3. 신청자격

• 업무시설용지 : 일반수요자
• 의료시설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해당하는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고자 하는 일반실수요자

4. 공급/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	2016. 8. 10 (10:00 ~ 16:00)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2로13 (청계동, 한흥빌딩 5층)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주)
입찰서 투찰	2016. 8. 10 (16:00 ~ 16:30)	
개찰 및 낙찰자발표	2016. 8. 10 (17:00)	
계약체결	2016. 8. 16 (10:00 ~ 15:00)	

5.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공급대상자는 입찰시간(2016.08.10. 16:30)에 입찰장소에 도착하여 매입의사를 표시한 자들(단, 신청자격, 서류 및 조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중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공급예정가격의 5%)을 입금한 다음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장소에서 직접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입찰보증금만 납부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입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2개법인 이상 공동신청은 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시 공동신청인 전원이 서명 날인한 대표자 선임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법인신청자의 경우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2개 법인이상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 신청시와 계약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개발사업본부 ☎031-689-4066 또는 당사 홈페이지(http://baegunamc.co.kr)의 공지사항에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9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이사